http://doi.org/10.5253/kpac.2025.52.4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의 시가(詩歌) 활용 양상과 <함산십곡(咸山十曲)>의 특징

김승우*

차 례

1. 서론
2. 한준겸의 시가 인식과 활용
3. <함산십곡>의 의미와 구성
4. 결론

| 국문초록 |

본고에서는 유천 한준겸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시기, 백성을 교화하거나 왕조 창업의 위업을 칭송하기 위해 시가를 적극 활용했던 내력을 살피고, 특히 함흥의 경관 열 곳을 선정하여 지은 <함산십곡>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한준겸은 임진왜란 직후 야인들이 준동하던 위기적 국면에서 함경도의 통치 책임을 맡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고 북방의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도 유념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가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한준겸이 시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 하나는 유가적 이념과 종법적 질서의 확립이며, 다른 하나는 북관 지역의 중요성과 자긍심의 환기이다. 오륜의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오륜법곡>과, 『용비어천가』를 초략·언해하여 유포한 『용비어천가약본』이 두 부류를 각각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준겸의 시가 활용 양상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주요 사례인 <함산십곡>은 『용비어천가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www.kci.go.kr

약본』과 마찬가지로 북관, 특히 함흥의 위상과 상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는 함흥의 대표적인 공간 열 곳을 선정하고, 각 공간에 대해 4언 8구 한 수씩 작품을 지어 총 십곡을 구성하였다. 열 개의 공간을 둘씩 묶어, 짝을 이루는 두 곡에는 동일한 어휘 및 통사 구조를 활용하여 연계성을 현시하였다. '육릉'·'본궁'을 다룬 제1·2곡에서는 각각 사조(四祖)와 태조의 유적을 기림으로써 함흥이 풍패지향(豊沛之鄕)임을 직접적으로 부각하였다. '격구장'·'덕산동'을 다룬 제3·4곡에서는 각각 태조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행적을 조명하여 함흥에 서린 태조의 기풍을 칭송하였으며, '문회당'·'무양정'을 다룬 제5·6곡에서는 한준겸 자신이 북관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은연히 드러내면서 문치와 무비가 이상적으로 조화된 양상을 형상화하였다. '구천각'·'낙민루'를 다룬 제7·8곡에서는 함흥의 웅장한 누각을 묘사하여 북관 지역 특유의 정세와 풍광을 운치 있게 포착하였고, '백화원'·'만세교'를 다룬 제9·10곡에서는 수려한 경치와 애상적 정서를 교차시키며 함흥의 일상적 풍광을 섬세하게 담아내었다.

이처럼 <함산십곡>은 '풍패의 위상', '태조의 기풍', '문무의 제도', '누각의 풍치', '승경과 인정'이라는 다섯 범주를 중심으로 함흥의 과거와 현재, 국가적 상징성과 일상적 감성을 아우르는 구조를 지닌다. 한준겸의 경세가적 사명과 시적 안목이 적절히 조화된 수작이라 할 만하다.

핵심어 : 한준겸(韓浚謙), 함산십곡(咸山十曲), 유천유고(柳川遺稿), 북관(北關), 함경도(咸鏡道), 함흥(咸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태조(太祖), 남구만(南九萬)

1. 서론

본고는 유천(柳川)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시기, 백성을 교화하거나 창업의 위업을 칭송하기 위해 시가(詩歌)를 적극 활용했던 내력을 살피고, 특히 함흥(咸興)의 경관 열 곳을 선정하여 지은 <함산십곡(咸山十曲)>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의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준겸은 선조와 광해군대에 걸쳐 활동한 조정의 중신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종사관이 되어 전황

www.kci.go.kr

(戰況)에 대응하였고, 전후에는 우승지, 대사성, 호조판서 등의 경직과 평안도 및 함경도 관찰사 등 주요 외직을 수행하며 전란의 복구와 민심 수습에 진력하였다.[1] 이러한 활동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광해군2년(1610) 11월부터 5년(1613) 5월까지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며 추진했던 각종 교화 사업이다.

오랜 기간 야인(野人)의 땅이었다가 세종대에 비로소 강역으로 편입된 함경도는 중앙의 통제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해 민심이 이반되기 쉬운 지역이었다. 육진(六鎭)을 설치하면서 삼남(三南)의 백성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대군(大君)들에게 각 진을 맡아 관할하도록 한 조처에서도 알 수 있듯이,[2] 북관(北關)에 대한 관리는 조정의 핵심 시책 가운데 하나였다. 더구나 함경도는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인 목조(穆祖) 이안사(李安社)가 이주한 이래 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태조(太祖), 그리고 태종(太宗)에 이르기까지 조종(祖宗)이 출생하고 활동했던 왕조의 토대이기도 하다. 이렇듯 북관은 통치가 까다로운 변경(邊境)이자 왕실의 연원이 깃든 풍패(豊沛)의 땅으로, 통치상의 긴장과 역사적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준겸과 같은 조정 중신이 임진왜란 직후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된 배경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란 초기에 함경도는 이렇다 할 항전도 없이 왜군에게 복속되었을 뿐만 아니라,[3] 이 지역으로 피신했던 임해군(臨海君, 1574~1609)과 순화군(順和君, 1580~1607)이 반민(叛民)에게 붙들려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에게 인도되는 참화가 벌어지기도 하였다.[4] 그처럼 민심의 이반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건주여진(建州女眞)의 누르하치(奴兒哈赤)가 북변을 위협하는 일까지 더해지자,[5] 조정에서는 식견

1) 「연보」, 『유천유고』.
2) 『세종실록』 권80, 20년 3월 3일(정해). "傳旨吏曹: "咸吉道慶源慶興, 乃祖宗興王之地. (…) 又置京在所, 以察風俗, 仍命宗親主之, 以晋陽大君琛主慶源, 安平大君瑢主會寧, 臨瀛大君瑤主慶興, 廣平大君璋主鍾城, 各摠本州之事, 永爲北方之藩翰.""
3)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25일(임오).
4) 『선조실록』 권21, 26년 3월 11일(병인).

www.kci.go.kr

있는 중신을 선발하여 함경도 관찰사로 파견해야만 했던 것이다.[6] 실제로 한준겸은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고 동요한 민심을 위무하며, 종법적(宗法的)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30세에 문과에 급제한 이래 71세에 졸할 때까지 약 40년간 경외의 여러 관직을 수행하였으나, 『인조실록』에 수록된 그의 졸기에는 유독 30개월간 재임했던 함경도 관찰사 시절의 업적만을 특화하여 기술해 놓았는데,[7] 이로 미루어 보아도 북관에서의 그의 행적이 당시에도 이미 각별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준겸의 북관 재임 기간 중 활동이 시가(詩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략 16세기부터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노래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려는 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8]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준겸 또한 시가를 대민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백성에게 도리와 규범을 일깨우는 방안으로 노래의 효용에 주목했던 것이다. 본고는 북방의 변경이자 동시에 풍패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함경도의 지역적 특성과, 공공의 가치를 확산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시가라는 두 측면에 주목하여 한준겸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함흥(咸興) 일대의 고적과 풍광을 시로 형상화한 <함산십곡(咸山十曲)>을 중심으로, 그 구성과 내용 및 교화적 기능을 면밀히 분석하게 될 것이다.

---

5) 『선조실록』 권100, 31년 5월 2일(병술); 『광해군일기』 권44, 3년 8월 12일(기묘); 권50, 4년 2월 2일(정묘) 등.

6) 「연보」에서도 이 점을 특기해 놓았다: 「연보」, 『유천유고』. “神宗萬曆三十八年庚戌, (…) 特拜咸鏡監司, 瓜滿仍任.”

7) 『인조실록』 권16, 5년 7월 17일(신사). “領敦寧府事西平府院君 韓浚謙卒. 浚謙字益之, 號柳川, 淸州人也. 風儀秀偉, 器量宏深, 早負公輔之望. 嘗按節北方, 先刊『家禮』·『小學』, 翻以諺釋, 又倣『儀禮』, 作鄕飮酒, 鄕射之禮. 出入勤勞, 宣力四方, 大得士民之心.”

8) 조태흠, 「훈민시조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89, 30~39쪽; 신연우, 「주세붕에서 정철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의」, 『온지논총』 4집, 온지학회, 1998, 41~46쪽;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496~500쪽; 하윤섭, 『조선조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91~218쪽; 민경서, 「16세기 향촌사족 교훈시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5, 23~79쪽 등.

www.kci.go.kr

2. 유천 한준겸의 시가 인식과 활용

한준겸은 인조의 정비인 인열왕후(仁烈王后, 1594~1635)의 부친이며 본관은 청주이다. 후일 함경도 경성판관(鏡城判官)에 제수되는 한효윤(韓孝胤, 1536~1580)의 삼남으로 한성에서 출생했는데, 한효윤의 신도비(神道碑)에 따르면 그가 경성판관에 보임된 시기는 정축년인 선조10년(1577)으로 확인된다.[9] 당시 21세였던 한준겸은 아버지를 따라 경성에 머물렀으며,[10] 후일 그 자신이 함경도 관찰사로 나가 곧바로 여러 시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도 청년기에 이 지역을 거쳐 간 내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준겸은 경성에서 돌아온 직후인 선조12년(1579)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선조19년(1586)에는 대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으로 환로에 들어섰고, 54세가 되던 광해군2년(1610) 9월에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11월에 부임한다.

앞서 언급했던『인조실록』소재의 졸기뿐만 아니라 신도비에서도 당시 북관에서 이룬 한준겸의 업적에 대해 비중 있게 거론하였다.[11] 이들 기록에 따르면, 그가 특히 유념했던 것은 옛 제도의 회복과 인간의 도리에 대한 강조였다. 형벌에 의존하기보다는 바람직한 법식을 마련하여 백성의 심성을 교화하는 데 힘썼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폐하고 위태로운 전후 상황에서 그는 엄정한 통치 대신 유화적인 인치(仁治)를 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의 일환으로 한준겸은 예악을 정비하는 데 많은 공력을 쏟았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9)「한효윤신도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5. 7. 2. <https://portal.nrich.go.kr/kor/ksmPandokView.do?ksm_idx=312&pan_idx1=254>. “丁丑以本職兼宗學司誨, 鏡城判官缺, 朝議重彈冏, 連三除論, 遞以公爲能勝其任擬差. 時朝著問士論方, 携貳公平心不立黨, 故無彼此皆欲選用. 一朝遠出, 人無不咨嗟不得留, 公受命卽行, 到官能自砥礪, 列鎭爲之敬憚.” ‘冏’는 판독 불가자이다.

10)「연보」,『유천유고』. “神宗萬曆五年丁丑, 奉晨昏於鏡城任所.”

11)「한준겸신도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5. 7. 2. <https://portal.nrich.go.kr/kor/ksmPandokView.do?ksm_idx=200&pan_idx1=165>. “戊申, 丁大夫人憂制除, 拜判尹·大司憲·咸鏡道觀察使, 下車之初, 慨然以風化自任, 禮高年旌異行, 誘掖士子, 設爲程式以興勸. 刊『家禮』·『小學』, 冠婚喪祭之制課以方書, 廣布閭巷, 俾民誦讀, 天荒之域, 一變文敎.”

www.kci.go.kr

음악과 노래의 효용에 착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거론할 만한 자료가 바로 『용비어천가약본(龍飛御天歌約本)』이다.

> 유천(柳川) 한상국(韓相國)이 북관지방 관찰사로 나가서 정치와 교화를 펼친 지 삼년에, 개연히 삼대(三代)에는 사람을 교화함이 오로지 예악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 폐하여진 것이 오래되었고, 인재들이 옛날 같지 않은 것이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겼다. 이에 향음(鄕飮)과 향사(鄕射)의 예와 시를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가르쳐 행하였는데, 한결같이 주공의 제도를 따라서 옛 음악만을 오로지 숭상하고 요즘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공자께서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신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특별히 민간에서 전해오는 노래를 취하여 그 중에 풍속의 교화에 관계될 만한 것 일부를 가려 뽑아 '오륜법곡'이라 하고는 그것을 교방에 주어 익히고 노래하게 하였다. 이것은, 세속 기생들의 음악은 비록 갑자기 바꿀 수는 없지만, 군신의 의리·부자의 친함·부부·장유·스승·벗의 도를 그 노래 가운데에 담아서, 음란한 음악 일변도로 치우쳐 바른 음악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12]

『용비어천가약본』은 10권 5책, 125장 분량의 『용비어천가』를 단권 26장으로 축약하고, 한문가사와 한문으로 기록된 사적을 언해하여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그 발문을 같은 청주 한씨 가문의 한교(韓嶠, 1556~1627)가 썼는데, 여기에서도 한준겸이 예악의 복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다. 향음(鄕飮) 및 향사(鄕射)의 예를 직접 관장하면서 시창(詩唱)의 방식과 악기 연주법까지 스스로 가르쳐 시행하였다는 언급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소의 과장이 섞였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한준겸이 음악에 상당한 조예를 지니고 있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상고적

12) 「발」, 『용비어천가약본』, 17b쪽. "柳川韓相國, 出按北關, 布政敎三載, 慨然以爲三代敎人專在於禮樂, 而其廢也久矣, 人才之不古若. 職由於此. 乃講行鄕飮鄕射之禮歌詩吹笙, 一遵周公之制, 而第以專尙古樂, 不用今樂, 非孔聖從周之義? 故特就俚俗相傳歌曲, 而抄出其有關於風敎者若干調, 名曰'五倫法曲', 付之敎坊, 習而歌之. 盖世俗倡妓之樂, 雖不可猝革, 而欲使君臣之義·父子之親·夫婦長幼師友之道, 寓於其中, 俾不至一向流蕩於桑間濮上, 而不知返也."

www.kci.go.kr

(尙古的) 성향이 매우 완고했다는 점도 위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다만 음악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고제(古制)만을 고수하다가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대의 음악과 노래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운 까닭은, 음악이란 본질적으로 향유자에게 감흥을 전달하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식에 부합하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당대의 청중에게 외면당한다면 그 의의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한준겸 역시 충분히 고려하였다. 그는 고제를 중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特]' 민간에서 통용되는 음악 가운데 수용 가능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던 것이다. 위 인용의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한준겸은 선율은 취하되 가사는 바꾸는 방식을 적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의 노래 가운데 들을 만한 것을 선택하고 유가적 이념이 담긴 가사를 새로 지어 그 선율에 올려 부르도록 하는 방식이다.[13]

특히 한준겸은 오륜(五倫)을 가사의 내용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확산되던 '오륜시가(五倫詩歌)' 창작의 경향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15세기에 궁중 악장으로 <오륜가(五倫歌)>가 제정된 이래, 16세기를 거치며 이른바 '오륜시가' 창작이 사대부 사이에서 활성화되었고, 17세기에는 그 폭이 한층 확대되기에 이른다.[14] 비록 위 기록에 언급된 <오륜법곡>이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한준겸이 당시 '오륜시가' 창작의 흐름에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그는 시속의 음악을 전면 긍정하지는 않았지만, 음악과 노래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기 때문에,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류의 음악과 민간의 노래까지도 포용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율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른 음악에 이르려는 지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 (…) 악장 가운데 쓰임에 적합한 것을 구한다면 <용비어천가>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에 조정에 청하여 궁에 소장하고 있는 『용비어천가』 1질 5책을

13) 이는 조선초기에 기존 고려속요(高麗俗謠)의 선율은 차용하되, 노랫말은 왕조 창업의 위업을 기리는 내용으로 바꾸었던 방식과 유사하다.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288~289쪽; 장사훈, 『(중보)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209~220쪽 참조.]

14) 하윤섭, 앞의 책, 50~328쪽.

www.kci.go.kr

> 역마 편으로 보내 달라 하였다. 상국이 장차 이것을 가지고 현가(絃歌)로 쓰고자 하였는데, 번잡하고 늘어짐을 면치 못할 것을 근심하고, 혹 노래하는 사람도 피곤해하고 듣는 사람도 괴로워할 것을 염려하여, 그 노래를 뽑아 축약하여 26장으로 만들어, 전하고 익힘에 편리하게 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사조(四祖)께서 겪으신 어려움과 운명을 여실 조짐과, 태조·태종께서 천명을 받아 개국하신 징조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후대의 임금들께 경계를 올리고 조종들이 덕을 닦은 것을 유념하라는 뜻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기이하고 상서로우며 신이한 행적 가운데 본도에서 있었던 것은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것을 언해하고 판각하여 널리 배포하였다. 굳이 언해까지 한 것은 주(州)·부(府)의 대소 관료와 마을 아이들·들판의 노인들까지도 모두 그것을 보고 알게 하고, 규방의 안과 시골에서도 모두 그것을 보고 외우게 하여, 모두가 우리 성조의 뛰어난 덕과 신이한 공을 생각하여 감히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15]

한편 한준겸은 함경도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데에도 시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함경도는 변방이자 풍패라는 두 특성을 동시에 지닌 지역이기에, 그는 백성의 완고한 기질을 교화해야 하는 책무뿐만 아니라, 함경도가 국가의 중지(重地)라는 인식을 관내에 홍포해야 하는 책무도 띠고 있었다. 이 두 가지 과업을 달성하는 데 모두 시가가 동원되었던 것인데, 앞서 <오륜법곡>이 전자의 목적에 해당한다면, 『용비어천가약본』은 후자의 목적에 밀접하게 연관된다.

『용비어천가약본』이 제작된 해는 한준겸이 함경도 관찰사로 3년째 재직하던 광해군4년(1612) 가을이다. 이 해는 임진왜란으로 유실된 『용비어천가』를 광해군의 명에 따라 중간한 이른바 '만력본(萬曆本)'이 인출된 때이기도 하다. 한준겸은 막 인출된 중간본을 조정에서 급히 받아와, 그해 안에 초략(抄略)과 판각, 인간까지 모두 마친 뒤 관내에 유포하였다. 그가 이처럼 약본 제작에 열

15) 「발」, 『용비어천가약본』, 18a~19a쪽. "而求其樂章之合用者, 則無出於『龍飛御天歌』. 故乃請于朝, 以內藏一帙五冊馳驛賚來. 相國將以此絃歌之願, 患其未免繁蔓, 恐或歌者倦, 而聽者煩, 卽撮而約之, 爲二十六章, 以便傳習. 而凡我四王艱難啓運之兆, 一祖一宗受命開國之符, 靡不悉備, 其進戒嗣王念祖修德之意, 亦皆存錄. 而且於奇祥異蹟之著, 在本道者, 尤致詳焉, 爲之諺解, 鋟梓廣布. 其所以必爲諺解者, 欲使州府大小官僚村童野叟, 皆得以知之, 閨房之內鄕曲之間, 皆得以誦之, 咸戴我聖祖盛德神功, 而不敢忘也."

www.kci.go.kr

의를 보인 이유는 『용비어천가』에 등장하는 사조(四祖), 즉 목조·익조·도조·환조의 사적 대부분과 태조 및 태종의 사적 중 일부가 함경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적들이 왕조 창업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초부터 북관을 배경으로 한 사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용비어천가』의 특징이 약본에서는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가령, 원작에서는 사조의 사적이 총 125개 장 가운데 18개의 장에서 다루어졌던 데 비해, 약본에 선정된 26개의 장 가운데 사조의 사적에 해당하는 장은 11개 장일 정도로, 사조의 비중이 원작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편집 방식은 사조의 활동 무대였던 북관의 위상을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낳았다. "본도에서 있었던 것은 더욱 자세하게 기록하였다.[在本道者, 尤致詳焉.]"라고 밝힌 발문의 대목에서도 그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16]

더불어 한준겸은 『용비어천가』의 취지를 함경도 백성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노랫말의 뜻을 암송할 수도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언해까지 추진하였다. 『용비어천가』의 노랫말은 워낙 응축적으로 지어진 데다가 노랫말의 기반이 되는 사적 또한 대개 장황하여 그 뜻을 간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난점을 해소하여 백성들이 쉽고도 빠르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적의 핵심만을 추려 각 노랫말에 국문으로 주석을 달았던 것이다. 약본이 함경도 백성들에게 실제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그가 각별히 유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노래가 지닌 효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한준겸은, 노래를 통해 북관 백성의 심성을 교화하고 창업의 발상지로서 북관이 지닌 중요성도 일깨우고자 하였다. <오륜법곡>과 『용비어천가약본』을 그 주요한 사례로 들 수 있거니와,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함산십곡> 역시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작품이다.

16) 『용비어천가약본』의 체재와 특징에 대해서는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사, 2012, 377~405쪽 참조.

www.kci.go.kr

(…) 학정(學政)을 재정비하여 제생(諸生)을 가르칠 적에도 모두 예법(禮法)을 위주로 하였는데, 이 때문에 도내에서 유관(儒冠)을 머리에 쓴 자들은 모두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식과 길흉(吉凶)에 따른 의복의 제도 등에 능통하였으니, 이 모두가 공의 교육 정책 덕분이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동(歌童)이 부르는 가곡(歌曲)까지도 모두 바로잡아서 외설스러운 표현을 없애고 고시(古詩)의 내용으로 교육하였으며, 그 지방의 민속 가요라 할지라도 반드시 도덕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가려서 가르쳤다. 그리고는 다시 이 십곡(十曲)을 만들어서 노래하도록 하였는데, 이 십곡은 함산과 관련하여 위로는 능침·고적·성지(城池)·누각·승경(勝景)·민인(民人)·문무(文武)·풍교(風敎)로부터 명도(名都)·아름다운 풍속에 이르기까지 모두 노래한 것이다.[17]

'함산(咸山)'은 함흥의 별칭으로 함경도 감영이 설치된 요충지이자 태조 이성계의 본거지였던 곳이기도 하다. 한준겸은 이 일대의 유적과 풍광 중 열 곳을 선정하여, 각 한 곡씩 십곡 형식으로 형상화하였다. 위 인용은 이 작품에 대해 포저(蒲渚) 조익(趙翼, 1579~1655)이 쓴 발문으로, 그는 광해군3년(1611) 10월에 홍문관 수찬(修撰)에서 고산도찰방(高山道察訪)으로 좌천되어 북관에 부임하였다. 당시 관찰사인 한준겸은 그의 울곧은 일 처리를 눈여겨보고는 친밀하게 대하였다고 전한다.[18] 이러한 인연으로 한준겸이 조익에게 발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예악에 관한 시책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음악에 대한 한준겸의 조예가 더욱 강조되었다. "가동이 부르는 가곡까지도 바로잡았다.[至於歌兒所唱歌曲, 亦皆正之.]"라는 기술은, 법식에 맞지 않는 창법이나 노랫말을 교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그 지향점은 고제의 회복에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관 백성을 교화하는 목적이 우선시되었기에, 음악과 가사 역시 반드시 옛 표본에 부합해야만 했던

17) 조익, 「함산십곡발」, 『포저집』 권27. "(…) 脩學政, 敎諸生咸以禮法. 以是, 道內冠儒冠者, 皆能通冠婚喪祭之儀, 吉凶衣服之制, 皆公之敎也. 至於歌兒所唱歌曲, 亦皆正之. 去其淫媟之語, 敎以古詩. 雖邦俗歌詠, 必擇其有倫理者敎之. 又製此十曲, 令歌之. 此十曲, 凡咸山上自陵寢·古跡·城池·樓閣·勝槩·民人·文武·風敎, 及至名都·佳麗之俗, 皆詠焉."

18) 이정철, 「조선시대 공물변통론에서 포저 조익의 위치와 역할」, 『대동문화연구』 7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262쪽.

www.kci.go.kr

것이다.

다만, 앞서 『용비어천가약본』의 발문에서도 언급되었듯, 한준겸은 옛 음악의 규범을 추구하면서도 당대의 음악적 변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 절충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위 인용에서도 이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그는 '지방의 민속 가요[邦俗歌詠]' 또한 수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북관 지역 특유의 교방가요(敎坊歌謠)나 민간에 떠도는 민요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비록 합당하지는 않지만, 당시 지역민의 정서와 기호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도덕적인 내용이 있는 것[其有倫理者]'에 한하여 노래를 선별해 교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기존의 곡을 단순히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개작하여 교화의 효과를 높이려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륜법곡>과 마찬가지로 이들 작품 역시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상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편, 한준겸은 완연히 새로운 창작을 도모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함산십곡>이다. 위 인용의 마지막에서도 예악 정비와 노래를 통한 교화 활동이 <함산십곡>의 제작으로 귀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함산십곡>은 한준겸이 북관에 재임했던 약 30개월 중 뒷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한준겸은 대민 교화와 북관의 위상 강화라는 두 가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가를 활용하였고, 그 각각에 대응하는 작품이 <오륜법곡>과 『용비어천가약본』이라고 언급하였거니와, <함산십곡>은 후자의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준겸이 시가를 활용한 내력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먼저 북관민에 대한 교화를 수행하고, 이어 북관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준겸이 <함산십곡>을 통해 표상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www.kci.go.kr

3. <함산십곡>의 의미와 구성

【그림 1】 <함산십곡>에서 다룬 장소 [「함흥부지도」]

<함산십곡>은 『유천유고(柳川遺稿)』「시(詩)」에 수록되어 있으며, 형식상 칠언절구로 분류되었으나 작품은 모두 4언 8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곡의 말미에는 ①'육릉(六陵)'·②'본궁(本宮)'·③'격구장(擊毬場)'·④'덕산동(德山洞)'·⑤'문회당(文會堂)'·⑥'무양정(武揚亭)'·⑦'구천각(九天閣)'·⑧'낙민루(樂民樓)'·⑨'백화원(百花院)'·⑩'만세교(萬歲橋)'라는 명칭이 명기되어 있어, 곡마다 다루는 대상이나 장소가 분명하게 드러난다.[19]

특히 주목할 사항은 '사장(四章)'이라는 말을 덧붙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육

19) <함산십곡>에서 다룬 열 곳의 공간을 고종9년(1872)에 제작된 「함흥부지도(咸興府地圖)」에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지도상에 지명이 나와 있어 그 위치를 뚜렷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一'·'二'와 같은 한자로 표시하고,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근거로 대략적인 위치를 비정하여 '5'·'9'와 같은 숫자로 표시하였다. '六'의 경우, 지도상에는 '무황정(無荒亭)'으로 적혀 있으나, '무양정(武揚亭)'의 오기로 판단된다.

www.kci.go.kr

릉사장(六陵四章)'·'본궁사장(本宮四章)'과 같은 방식으로 곡의 분절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이 작품이 실제로 노래로 불렸음을 시사한다. 어떤 선율로 불렸는지는 단서가 없어 알 수 없으나, 8구로 구성된 한 곡을 4장으로 나누었으니 두 구씩 묶어 가창 단위로 설정하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각 곡은 내용상 하나의 단위를 이루지만, 실제 가창에서는 이를 네 분단으로 나누어 실연하였던 것이다. 문학적 단락과 음악적 분절이 별도로 설정되었던 셈이다.[20]

전체적인 구성을 조망해 보면, 한준겸은 각 두 곡씩을 짝지어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으며, 그러한 구조를 시어의 대응을 통해 드러내려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각 곡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십곡의 배열 순서와 상호 간의 연계성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瞻彼六陵 三王所藏	저 육릉을 우러르니, 세 임금이 모셔져 있네.
象衛森森 柏城蒼蒼	호위하는 석상들은 빽빽하고, 성처럼 두른 측백은 푸르도다.
基周八百 啓漢高光	주나라 팔백 년을 터 잡으며, 한나라의 높은 빛을 열었네.
曷不懷止 源遠流長	어찌 생각을 그치랴, 그 근원은 멀고 흐름은 기니.

– 육릉 사장(六陵四章)

제1곡에서는 북관에 위치한 육릉(六陵)을 다루었는데, 육릉은 함흥에 있는 덕릉(德陵)·의릉(義陵)·순릉(純陵)·정릉(定陵)과, 인근 지역인 안변(安邊)의 지릉(智陵), 문천(文川)의 숙릉(淑陵)이다. 각각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목조, 조부

20) 이와 유사한 사례는 <용비어천가>의 한문가사를 올려 부르는 악곡인 '여민락(與民樂)'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민락'에는 <용비어천가>의 제1~4장과 제125장만이 활용되는데, 악곡상으로는 제1장을 '해동장(海東章)'이라 했고, 제2~4장은 선사(先詞)와 차사(次詞)를 개별 장으로 분단하여 차례로 '근심장(根深章)'·'원원장(源遠章)'·'석주장(昔周章)'·'금아장(今我章)'·'적인장(狄人章)'·'야인장(野人章)'이라 했으며, 제125장은 삼분하여 각각 '천세장(千世章)'·'자자장(子子章)'·'오호장(嗚呼章)'이라 하였다. 문학적으로 설정된 다섯 개의 장이 악곡상으로는 열 개의 장으로 나뉜 것이다.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도의」.]

www.kci.go.kr

도조, 도조의 비인 경순왕후(敬順王后), 부친 환조, 증조부 익조, 익조의 비인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능이다. 이들 능호는 태조 원년(1392) 8월에 정해진 것으로, 당시 태조는 정안대군(靖安大君)을 북관에 파견하여 제향을 행하도록 하였다.[21] 순릉과 숙릉은 왕비의 능이고 익조의 능인 지릉은 안변에 있으므로 육릉 가운데 한준겸이 함흥에서 직접 조망했던 임금의 능은 목조·도조·환조의 능인 덕릉·의릉·정릉이다. 2구에서 '세 임금[三王]'만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준겸은 관찰사로 부임한 후, 직접 이들 능침을 돌아보고 일대를 정비하였으며 제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다. 특히 정릉에는 비석을 세우도록 조정에 건의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22] 능침의 관리는 본디 관찰사의 직무 중 하나이지만, 한준겸은 더욱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쏟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함흥의 승지를 노래한 <함산십곡>의 첫머리에 그가 육릉을 배치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관료 문인의 시선에서, 함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능역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4구에서도 능 주변의 풍경을 강조하는 서술이 이어진다. 능역을 호위하는 석상들과 능 근처에 성곽처럼 펼쳐진 측백나무의 장관은 개국 시조들의 위엄과 왕조의 심원함을 현시하는 광경으로 포착된다. 관찰사가 되어 능역을 이렇듯 완정하게 정비했던 한준겸의 자긍심이 묻어나기도 한다.

그러한 자부는 조선왕조의 창업이 주(周)나 한(漢)의 창업에 견줄 만하다는 인식으로 확대된다. 5·6구에 나타나는 구도는 다소 도식적이거나 관습적으로 보일 여지가 있지만, 이는 한준겸이 중시했던 『용비어천가』의 전례가 원용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는 선사(先詞)와 차사(次詞)를 정사대(正事對)로 엮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23] 왕조 창업을 주·한의 사례

21) 『태조실록』 권1, 1년 8월 8일(정사).
22) 조익, 「함산십곡발」, 『포저집』 권27. "公之莅此邦, 觀風籌邊, 游刃有餘, 乃又追求古跡, 貴飾文物. 旣建請于朝, 立定陵碑, (…)"
23) 성기옥, 「<용비어천가>의 구조와 서사성」, 새터 강한영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307쪽.

www.kci.go.kr

에 비견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5·6구도 이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마지막 7·8구에 이르러서는 왕조의 굳건한 기반에 대한 칭송의 뜻을 내세웠다. 한준겸은 조선이 심원한 내력을 지닌 국가임을 다시금 환기하면서, 그 기반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감회를 표하였다. 『용비어천가』의 서(序)에 해당하는 제2장에서 "왕업의 쌓임이 깊고도 멀다.[王業積累之深遠.]"라고 했던 취지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25] 이처럼 <함산십곡> 제1곡은 '육릉'이라는 대상을 취했다는 점에서나 이를 의미화한 방식에 있어서나 작품 전체의 서두로서 이상적인 면모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胥彼本宮 聖祖攸宅	저 본궁(本宮)을 바라보니, 성조(聖祖)께서 머무시던 집이네.
手種靈松 天護異蹟	손수 신령한 소나무 심으시니, 하늘이 기이한 자취를 지켜 주었도다.
羹墻在玆 寢殿如昔	사모하는 마음 여전하고, 침전(寢殿)도 예전 그대로이네.
曷不敬止 有屹斯右	어찌 공경을 그치랴, 우뚝하게 이곳을 받들고 있으니.

– 본궁 사장(本宮四章)

제2곡에서는 함흥의 본궁(本宮)을 다루었다. 제1곡이 태조의 선조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제2곡은 태조의 행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대응이 나타난다. 그러한 연관성은 어구의 배치에서도 현시되었는데, 제1곡과 제2곡의 1구에는 각각 '첨피육릉(瞻彼六陵)'과 '서피본궁(胥彼本宮)'이, 7구에는 '갈불회지(曷不懷止)'와 '갈불경지(曷不敬止)'가 대를 이루도록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본궁은 함흥부 남쪽 15리에 위치한 곳으로, 태조가 잠저(潛邸) 시절 거처하

24)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전거와 체재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사, 2017, 257~275쪽.
25) 『용비어천가』 권1, 2a쪽.

www.kci.go.kr

【그림 2】 정선(鄭敾)의 <함흥본궁송>

였고 선위 이후에도 돌아와 머물렀던 장소이다. 태조의 초년과 만년의 자취가 오롯이 남아 있기에 함흥을 대표하는 고적으로 손꼽혀 왔다. 제2곡의 1·2구에서도 본궁의 그 같은 역사적 의의를 직접 강조하였고, '피(彼)'라는 지시어를 활용하여 실제 해당 장소에 와 있다는 현장감을 드러내었다. 이는 3·4구의 구체적 풍광 묘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장치로 작용한다.

한준겸이 본궁의 풍광 가운데 특별히 주목한 대상은 여섯 그루의 '신령한 소나무[靈松]'였다. 본궁 뒤편에 자리한 이 소나무들은 태조가 친히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조의 호인 '송헌(松軒)' 또한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한다.[26] 본궁을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이 소나무들은 태조의 존귀한 면모를 환기하는 상징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소나무들이 '신령하다[靈]'라고 한 것은 단지 태조가 손수 심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로 진출한 왜군에 의해 본궁은 전소되었지만 이 소나무들만은 화마를 피해 살아남았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한준겸은 4구에서 바로 이 점을 칭송하였던 것이다.[27]

26) 이유원, 『임하필기』 권16. "(…) 殿前有豊沛樓, 樓前有蓮池, 殿後六松太祖手植, '松軒'之號以此, 壬燹亦無恙."

www.kci.go.kr

한편, 임진왜란으로 불탄 본궁은 곧 복구되었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한준겸이다. 그는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한 광해군 2년(1610)에 곧바로 본궁의 중건을 추진하였으며,[28] 5·6구에서 본궁이 예전 모습과 같다고 기술한 이유 역시 이와 관련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비록 전란으로 본궁이 불타는 아픔을 겪었으나, 왕조의 근간이라 할 이곳이 다행히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는 안도와, 그 일을 자신이 수행하였다는 자긍이 5·6구의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함흥 본궁은 한준겸에게 단순한 역사적 유적이 아니라, 왕조의 기틀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었다. 7·8구에서 하늘의 가호가 깃든 이적을 다시금 상기하며 경외의 뜻을 표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隱隱平臺 斷山之陬	은은하고 평탄한 대(臺)가 깎아지른 산모퉁이에 자리하니,
右帶長郊 左挹滄洲	오른쪽엔 긴 들판이 두르고 왼쪽엔 푸른 물가가 휘감고 있네.
昔我聖祖 於焉擊毬	예전 우리 성조(聖祖)께서 이곳에서 격구를 하셨으니,
碭雲澤釰 載擁神休	탕산(碭山)의 구름과 사택(蛇澤)의 검이 신령 한 기운 감싸고 있네.

– 격구장 사장(擊毬場四章)

제3곡과 제4곡에서는 함흥에서 이루어진 태조의 옛 행적을 다루었는데, 먼저 제3곡은 청년기의 활동에 해당한다. 태조는 일찍부터 궁술과 승마술 등 무예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으며 격구(擊毬)에도 능했다고 전한다. 『태조실록』「총서(總序)」와 『용비어천가』에도 태조의 격구술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을

27) 18세기에 이계(耳溪)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이 소나무에 얽힌 영험함을 더욱 강조하는 시를 짓기도 하였다: 홍양호, <掛弓松>, 「朔方風謠」, 『이계집』 권5; 김승우, 「북관 고적에 대한 홍양호의 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국시가문화연구』 5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157~160쪽.

28) 남구만, 「함흥십경도기」, 『약천집』 제28. “壬辰之亂, 舊宮盡燬, 庚戌觀察使韓公浚謙重建.”

www.kci.go.kr

정도이다.[29] 격구는 단지 유흥거리가 아니라 무과(武科) 시취(試取)에 규정된 종목이기도 하였기에, 태조의 탁월한 무예를 강조하는 데 직접 소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30]

다만, 『태조실록』이나 『용비어천가』에 수록된 격구술은 태조가 개경에 진출하여 군중 앞에서 선보였던 것인 반면, 위 작품에서는 함흥에 머물던 청년기의 태조 역시 격구를 즐겼고 그 장소가 완연하게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함흥부 남쪽 15리에 위치한 격구장은 이름 그대로 격구를 하던 넓은 벌판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곳을 기념할 만한 별다른 표지조차 없었다가, 후일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한 약천(藥泉)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이 이를 안타깝게 여겨 현종15년(1674)에 그곳에 정자를 세우고 '격구정(擊毬亭)'이라 명명함으로써 격구장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였다.[31] 이후의 문헌에서는 이곳을 기릴 때 '격구장' 대신 '격구정'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현상이 발견된다.

격구장에 관한 여러 시문에서는 주변 풍광이 지극히 아름답다는 평이 빠짐없이 나타나는데,[32] <함산십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격구장은 산 절벽 모퉁이에 평평하게 펼쳐져 있고, 우측으로는 함흥평야가 맞닿아 있으며, 좌측으로는 성천강(城川江)이 바다로 흘러들기에, 넓은 들판과 강, 바다를 높은 지점에서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회자되었다. 제3곡의 1·2구와 3·4구에서도 이 같은 격구장의 입지를 원경으로 담아 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다.

이하에서는 격구장의 역사적 의의를 본격적으로 논하였다. 5·6구에서는 태

29) 『태조실록』 권1, 「총서」; 『용비어천가』 권6, 38a~40b쪽.

30) 성제훈·곽낙현, 「조선전기 무과 시취를 통해 본 무예 검토」, 『청계사학』 26집, 청계사학회, 2023, 30~31쪽.

31) 남구만, 「함흥십경도기」, 『약천집』 제28. "余於甲寅夏, 始作四楹之亭. 蓋咸興之野, 平衍闊遠, 旣無與比, 而玆亭乃左臨大野, 右瞰滄溟, 軒豁宏大, 甲於天下."

32) 홍양호, <격구정>, 「삭방풍요」, 『이계집』 권5. "擊毬亭, 臨滄溟, 滄溟之水繚繞龍潛里, 水光山色何靑靑, 魯人獵較分聖人多能, (…)"; 洪敬謨, <격구정>, 『冠巖全書』 책3. "擊毬亭子倚崔嵬, 檻外郊平莽蒼廻, 天坼東南滄海濶, 山橫幽朔大風來, 龍飛猶自浮雲護, 馬跡依然馳道開, 聖武如今光百代, 三韓天地一高臺."; 李象秀, <격구정>, 『嘫堂集』 권2. "山頭馳馬路, 海上擊毬亭, 叱咤風雲勢, 鞭笞岳瀆靈, 波浮三島白, 樹擁二陵靑, 獨立天光暮, 長吟入窅冥." 등.

www.kci.go.kr

조가 예전에 이곳에서 격구를 했다는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7·8구에서는 그러한 행적이 훗날 태조가 이루게 될 웅대한 업적을 예비하는 활동이었음을 강조하였다. 태조가 격구를 즐겼다는 사실은 자칫 유희에 함몰되었다는 의미로 비추어질 소지도 있는 만큼, 한준겸은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격구장의 의미를 보다 보편적이고도 역사적인 국면으로 확장하려 하였다. 7구의 '탕산(碭山)'과 '사택(蛇澤)'은 모두 한 고조(高祖)의 사적으로서, 잠저 때에 몸을 숨기고 상서를 얻었다는 의미를 지닌다.[33] 그와 마찬가지로 소싯적 격구로 무예를 단련했던 태조에게도 신령한 축복과 길조가 따랐다는 뜻을 덧붙이면서 격구장의 상징성을 고양하였다.

陰陰古洞 二嶺之側	음산한 옛 동네가 두 봉우리 곁에 있으니,
連山壁壘 滿谿荊棘	잇닿은 산은 성벽처럼 둘렀고 골짜기에는 가시덤불 가득하네.
昔我聖祖 於焉殲賊	예전 우리 성조(聖祖)께서 이곳에서 적을 소탕하셨으니,
一日三捷 悉平東北	하루에 세 번 승리하여 동북 지방을 모두 평정하셨도다.

- 덕산동 사장(德山洞四章)

제3곡에서 태조의 청년기 재능을 다루었다면, 제4곡에서는 장년기에 세운 무공(武功)을 부각하였다. 태조가 함흥 덕산동(德山洞)에서 북원(北元)의 나하추(納哈出, ?~1388)를 상대로 거둔 승전을 주제로 삼은 것이다. 앞선 제1·2곡

33) 『史記』 권8, 「高祖本紀」. "(…) 高祖被酒, 夜徑澤中, 令一人行前. 行前者還報曰: "前有大蛇當徑, 願還." 高祖醉, 曰: "壯士行, 何畏!" 乃前, 拔劍擊斬蛇. 蛇遂分爲兩, 徑開. 行數里, 醉, 因臥. 後人來至蛇所, 有一老嫗夜哭. 人問何哭, 嫗曰: "人殺吾子, 故哭之." 人曰: "嫗子何爲見殺?" 嫗曰: "吾子, 白帝子也, 化爲蛇, 當道, 今爲赤帝子斬之, 故哭." 人乃以嫗爲不誠, 欲告之, 嫗因忽不見. 後人至, 高祖覺. 後人告高祖, 高祖乃心獨喜, 自負. 諸從者日益畏之. 秦始皇帝常曰: "東南有天子氣." 於是因東游以厭之. 高祖卽自疑, 亡匿, 隱於芒·碭山澤巖石之間. 呂后與人俱求, 常得之. 高祖怪問之. 呂后曰: "季所居上常有雲氣, 故從往常得季." 高祖心喜. 沛中子弟或聞之, 多欲附者矣."

www.kci.go.kr

에서 그러하였듯, 제3·4곡에서도 어구나 표현, 통사상의 연계성을 드러내었다. 예컨대 제3·4곡의 초두에 각각 배치한 '은은(隱隱)'과 '음음(陰陰)'이라는 유사한 표현, 각 곡의 5·6구에 넣은 '석아성조(昔我聖祖)'와 '어언(於焉)'이라는 동일한 어구는 두 곡의 연계를 현시하는 표지이다.

나하추를 격퇴한 공적은 조선조 내내 중시되었다. 창업 직후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태조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악장(樂章)을 제진하면서, 나하추를 물리친 업적을 황산대첩, 위화도회군과 더불어 태조의 가장 중요한 무공으로 지목하였다.[34] 당시 지어진 <납씨곡(納氏曲)>은 조선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승되며 그 위상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에도 관련 사적이 비중 있게 수록되었다.[35]

공민왕11년(1362) 가을에, 원의 잔당을 이끌던 나하추가 고려의 경계에 이르러 북변을 침범하자 태조가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되어 그에 맞섰다. 이때의 전투는 장소를 옮겨 가며 며칠간 대규모로 전개되었으나,[36] 함흥의 고적을 시화한 한준겸은 그 가운데에서도 초기 승전지인 덕산동만을 집중 조명하였다. 덕산동은 함흥부 동쪽 40리 지점의 산간에 자리하며, 주위로는 함관령(咸關嶺)과 차유령(車踰嶺) 두 고개가 둘러싸고 있어 지형이 더욱 험준하다.[37] 나하추는 고려를 배반한 탁도경(卓都卿, ?~1362)·조소생(趙小生, ?~1362) 등과 함께 홍원(洪原)의 달단동(韃靼洞)에 진을 치고 침공을 시도하였으나, 태조가 천여 명의 적 선봉대를 덕산동에서 격퇴한 뒤 패주하는 자들을 함관령과 차유령 너머까지 추격하여 거의 섬멸하였다. 이에 격노한 나하추가 주력을 덕산동으로 진출시키자 태조는 그날 밤 다시 기습을 감행하여 적군을 몰아냈다.[38]

---

34) 『태조실록』 권4, 2년 7월 26일(기사).

35) 김승우, 「선초 악장 <납씨곡(納氏曲)>의 특징과 수용 양상」,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사, 2017, 224~245쪽.

36) 『고려사』 권40, 「세가」 제40, 공민왕11년.

37) 함흥부, 함경도,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8. "德山洞. 在府東四十里, 咸關·車踰二嶺之南."

38) 『태조실록』 권1, 「총서」. "七月, 納哈出領兵數萬, 與趙小生·卓都卿等屯于洪原之韃靼洞, 遣哈剌萬戶那延帖木兒, 同僉伯顔甫下指揮, 率一千餘兵爲先鋒. 太祖遇於德山洞院平, 擊走之, 踰咸關·車踰二嶺幾殲, 委棄鎧仗, 不可勝數. 是日, 太祖退屯答相谷, 納哈出怒, 移屯德山洞,

www.kci.go.kr

이러한 당시의 전황이 제4곡에 반영되어 있다. 먼저 1·2구와 3·4구에서는 덕산동의 전반적인 풍광을 제시하면서, 이곳이 험난하고 깊은 산중임을 강조하였다. 고개와 산에 가로막혀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인적마저 드물어 가시덤불이 골짜기를 가득 메운 경관을 묘사함으로써,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곳 벽지가 역사에 길이 남을 승전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환기하였다.

이어지는 5·6구와 7·8구에서는 태조의 업적이 직접적으로 칭송되었다. 태조가 적장 나하추를 결정적으로 패퇴시킨 공적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한편, 하루에 세 차례나 연달아 승전을 거두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적의 예봉을 꺾고, 도주하는 잔당을 섬멸한 뒤, 주력군까지 야간 기습으로 격퇴한 성과가 '일일삼첩(一日三捷)'이라는 핵심적 어구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압도적 승리를 통해 동북면이 완전히 평정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밝히며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文會有堂 粉袍如雲　　문회당이 있어 흰 도포가 구름처럼 모였으니,
從事翰墨 游心典墳　　붓과 먹에 종사하고 경전과 옛 문헌에 마음 쏟네.
明窓晝永 淨几鑪薰　　밝은 창에는 낮이 길고 깨끗한 책상에는 향로에 향이 피어나니,
儒者之學 志先致君　　유자의 학문으로 임금을 섬기는 뜻을 먼저 둔다네.

– 문회당 사장(文會堂四章)

제5곡과 제6곡은 함흥이 안정적으로 통치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관찰사로서 역내를 원만하게 관할하고 있다는 한준겸의 자긍 또한 엿보인다. 통치의 근간이 문(文)과 무(武)로 나뉘듯, 두 곡에서도 역시 각각 문과 무를 주제로 삼았다. 먼저 제5곡에서는 유학의 기풍이 북관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표징으로 문회당(文會堂)을 지목하였다. 변경인 북관에서조차 유학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문치(文治)가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太祖乘夜襲擊敗之. 納哈出還韃靼洞, 太祖屯舍音洞. (…)"

www.kci.go.kr

문회당은 함흥부 치소(治所) 북쪽에 위치한 학당으로, '문회서원(文會書院)'으로도 불리었다. 명종18년(1563)에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 1531~1605)이 함흥교수(咸興敎授)로 부임했을 당시, 북관에 문교를 숭상하지 않는 풍조가 만연한 것을 개탄하여 당시 관찰사였던 만수(晩修) 유강(兪絳, 1510~1570)에게 학당 설립을 요청하였고, 그 뜻이 달성되자 직접 <문회당기(文會堂記)>를 지었다는 기록이 전한다.[39] 문회당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선조8년(1575)에 관찰사로 부임했던 청연(靑蓮) 이후백(李後白, 1520~1578)에 의해서였다. 그는 임금에게 청하여 경서(經書)를 반사(頒賜) 받고 학전(學田)을 마련하였으며, 남도(南道)의 유생들을 문회당으로 불러 모아 학업에 전념하게 하였다.[40] 이로부터 3, 40년이 지난 시점에 부임한 한준겸은 극히 피폐했던 전후 시기임에도 문회당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는 비용과 인력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일이었으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북관 지역에 문교를 확산하려는 일념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작품에서도 이렇듯 문교가 확립된 기운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1·2구에서는 문회당과 유생들을 함께 포착하여,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그 공간에 유생들이 운집해 있는 풍경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3·4구와 5·6구에서는 모두 대구를 취하였는데, 먼저 3·4구에서는 유생들이 필묵과 경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학문에 힘쓰는 이들의 태도를 서술한 대목에는, 유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는 한준겸의 자부심이 배어 있다. 같은 취지이지만 5·6구에서는 시선을 문회당 속 경물에 맞추었다. '밝은 창[明窓]'과 '깨끗한 책상[淨几]'이

39) '高應陟', 「儒學」, 『人物考』 권2, "壬戌, 赴咸興敎授. 公以北方不尙文學, 請於監司, 建文會堂於州治北, 手書『大學章句或問』, 自爲跋文, 壽梓廣布, 仍作「文會堂記」."

40) 李健命, <咸興文會書院靑蓮追享祭文>, 『寒圃齋集』. "穆廟御世, 儒化旁達, 時維文淸, 簡畀北臬, 思宣德意, 首闢庠序, 其敎其育, 有條有緖, 廣聚經籍, 厚以廩餼, 由淺入深, 必以身帥, 賢愚咸得, 遠近風動, 椎鄙一變, 弓馬絃誦, (…)"; 남구만, 「北關各廳節目序」, 『약천집』 권27. "咸興府有文會書院, 刱自觀察使兪公絳. 其後觀察使李公後白啓請, 頒賜經書, 且置學田於各邑, 使之徵稅輸送. 而又使逐月運致魚饌, 以爲每一日三十人之供. 而南道十三邑儒生, 皆使來會肄業."

www.kci.go.kr

라는 이미지를 엮어서 문회당의 고즈넉하고 정결하며 학구적인 분위기를 인상 깊게 표현하고 절제된 학문 풍토를 부각하였다. 제7·8구에서는 이러한 문회당 운영의 의의를 집약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유자의 학문이란 모름지기 임금을 받들어 경세(經世)를 하는 데 그 뜻을 둔다는 유교적 대의를 강조하면서, 변방 북관에서조차 그러한 이상이 실천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武揚有亭 驍士習戎　　무양정이 있어 용맹한 무사들이 무예를 익히니,
平蕪躍馬 茂林調弓　　평탄한 들에서 말 달리고 울창한 숲에서 활쏘기 연마하네.
赳赳洸洸 如虎如熊　　늠름하고 당당하여 범 같고 곰 같으니,
北方之强 衛國無窮　　북방의 강성함으로 나라 지킴에 끝이 없다네.
– 무양정 사장(武揚亭四章)

제5곡이 문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와 짝을 이루는 제6곡은 무비(武備)를 주제로 삼았다. 문회당에 대응되는 공간으로는 무양정(武揚亭)이 설정되었으며, 각 곡의 첫 구에 '문회유당(文會有堂)'과 '무양유정(武揚有亭)'을 병치함으로써, 북관의 문치와 무비를 각각 상징하는 공간을 동일한 통사구조로 제시하였다. 이로써도 두 곡 사이의 연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무양정은 선조10년(1577)에 관찰사로 부임했던 정암(正庵) 박민헌(朴民獻, 1516~1586)이 성천강가에 세웠으며 본래 이름은 '무양당(武揚堂)' 또는 '군용관(軍容舘)'이지만,[41] '무양정'으로도 통용되었던 듯하다. 함흥부 서쪽 5리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도내의 무사들이 사열을 받거나 무예를 익히던 장소로, 위풍당당한 무사들에 의해 성대한 강무(講武)가 펼쳐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한준겸으로부터 약 60년 뒤에 관찰사로 부임한 남구만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임기에는 군용관이 이미 폐허로 변해 있었고 강무(講武) 역시 중단된 채 방치되었다고 한다. 그는 <함산십곡>의 바로 이 작품을 근거로 한준겸이 재임

41) 林悌, <次巡撫武揚堂韻>, 『林白湖集』 권3, "【正庵之爲方伯也, 以黃草嶺去賊路未遠, 故建斯堂於上游, 一名'軍容館'】."

www.kci.go.kr

할 때에는 강무가 시행되었던 사실을 상기하였다.[42]

실제로도 작품에는 무양정에서 펼쳐지는 사열과 강무의 광경이 반영되어 있다. 이 같은 행사는 이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으나, 한준겸은 그 관례를 자신이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과 북방이 철저히 방비되고 있다는 현황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무양정을 작품의 소재로 삼은 것으로 이해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십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북방 야인들의 동향이 크게 불안정했던 당시는 무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작품에서는 무양정에 집결한 무사들의 위용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 초두에서부터 무양정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곳이 무예를 익히는 장소임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제5곡에서 문회당을 곧바로 지목한 방식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이어지는 3·4구에서는 무양정 일대에서 펼쳐지는 강무 장면을 대구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승마술과 궁술이라는 핵심적인 무예를, 각각 평탄한 들판과 울창한 수풀에서 연마한다고 표현하였다. 실제로도 무양정이 위치한 함흥부 서쪽 5리 일원은 성천강가여서 들판이 존재하며, 고지도에는 정자 위편으로 숲이 표시되어 있는데,[43] 그 같은 지형적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일대에서 다양한 훈련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6구에서는 무사들의 장대한 기상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었다. 특유의 율동감이 부각된 대목이기도 하다. '규규(赳赳)'는 씩씩한 풍모를, '광광(洸洸)'은 위엄 있는 자태를 환기하며, 두 어휘가 연속되면서 위용이 역동적으로 고조되는 효과를 자아낸다. 이어 무사들을 '범[虎]'과 '곰[熊]'에 비유한 구절은 이들의 기운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다. 범은 민첩하고 맹렬한 기세를, 곰은 둔중하되 굳건한 힘을 연상케 하는데, 두 동물의 이 같은 이미지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해 훈련된 무사들이 지닌 다양한 기량과 전투력을 각인시킨다. 마지막 7·8구

42) 남구만, 「함흥십경도기」, 『약천집』 제28. "咸興府西五里許, 有軍容館古基, 乃閱武之地也. 傳言在昔聚道內武士, 習弓馬于玆地, 以爲儲養之所, 或稱以'武揚亭'云. 未知刱自何年, 罷於何時. 而韓西平按道時, 作<咸山十詠>, 有"武揚亭躍馬調弓"之語, 然則玆事之廢, 殆不過五六十年之間耳."

43) 「함흥읍도」; 「함흥부지도」 등.

www.kci.go.kr

에서는 강건한 군비(軍備)로 국가의 안위를 오래도록 견고하게 지키리라는 의지와 전망을 표출하였거니와, 이 구절은 북관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려는 뜻으로도 읽힌다. 북관의 굳건한 태세가 곧 국태안민(國泰安民)의 관건임을 밝혀 이 지역의 중요성을 핵심적으로 집약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관찰사인 자신이 그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을 은연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有閣穹窿 高壓崇墉	누각이 있어 하늘로 치솟아, 드높이 우뚝한 성벽을 굽어 누르니,
麗譙耀日 粉堞橫空	고운 망루 햇빛에 빛나고 흰 성가퀴 허공을 가로지르네.
重門禦暴 千里折衝	겹문은 사나운 기세를 막고, 천 리 밖의 적도 꺾어 버리니,
倚樓之文 勒彼膚公	누각에 걸린 글에 그 큰 공이 새겨져 있네.

- 구천각 사장(九天閣四章)

제7곡과 제8곡에서는 함흥의 누각(樓閣)을 시화하였다. 누각은 지리지나 읍지에 빠짐없이 언급될 만큼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는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준겸 역시 함흥의 풍광을 노래하면서 누각에 두 곡을 할애하였다. 통상 누각은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하며 연회나 풍류를 즐기기 위한 장소로 활용되지만, <함산십곡>에 등장하는 누각은 군사적 방비를 위해 건립되었거나 그러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사례와는 변별된다. 먼저 제7곡에서 다룬 누각은 구천각(九天閣)이다. 함흥의 풍광을 다룬 여타의 작품

【그림3】「함흥읍도(咸興邑圖)」에 그려진 구천각

www.kci.go.kr

이나 문헌에서는 앞서 살핀 육릉·격구장·문회당 등이 자주 언급되는 반면, 구천각은 별반 확인되지 않는다. 구천각은 함흥부의 북편 산자락을 따라 이어진 성곽 위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군사적 성격이 강한 건물이었기에 문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준겸이 구천각을 굳이 함흥의 풍광 열 곳 가운데 하나로 포착한 이유는 그 자신이 이 구천각을 중건했기 때문이다. 포저 조익이 지은 「구천각기(九天閣記)」에 따르면, 구천각은 한준겸보다 3, 40년 앞서 관찰사로 재임했던 청연 이후백이 포루(砲樓)로 세운 건물이었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하여 본래의 구실을 하지 못하자 한준겸이 이를 증축하였다. 난간을 몇 층으로 올리고 마룻대를 높여 규모를 확장하였으며, 기둥에 채색을 하고 용마루도 올리는 등 외양까지 아름답게 정비하였다고 한다.[44]

작품에서도 이처럼 장대한 구천각의 모습이 강조되었다. 1·2구에서는 구천각의 외형과 입지를 언급하였다. 구천각은 함흥부 안팎을 널리 내다볼 수 있는 부성 북쪽 산마루 밑에 세워졌다. 당초부터 우뚝한 지형에 위치하는 데다 한준겸이 건물의 높이를 더욱 높였기에 그 웅장함이 한층 도드라졌으리라 짐작된다. 구천각을 증축하면서 한준겸은 산마루 일대에 성벽도 새로 축조하였는데,[45] 그렇게 쌓아 올린 높다란 성벽조차도 구천각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있는 듯한 인상을 표출하였다. 3·4구에서도 구천각 일대를 원경으로 조망하였다. 망루를 '곱다[麗]'라고 한 것은 한준겸이 구천각의 규모뿐 아니라 미관에도 공을 들였음을 시사한다.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누각의 빛깔과 하늘에 떠 있는 듯한 성가퀴의 하얀 색채가 어우러진 장관이 감각적으로 묘사되었다. 작품의 중점은 구천각이지만, 성벽 역시 자신이 새로 축조하였다는 점을 이 대

44) 조익, 「구천각기」, 『포저집』 권27. "及今上之三年, 西原韓公以前大司憲, 來按朔方. (…) 越三年某月, 公出按城池, 謂: "安不忘危, 古之道也. 慮不可以不遠." 乃崇其垣, 飾其堞, 增其卑, 易其惡, 凡前帥之所未及者, 一新之. 以前李巡察所置砲樓, 名'九天閣', 當山之高, 俯臨四野, 而其規模狹小, 無以容衆, 乃經工度材, 用恢其制. 層軒崇阿, 畫棟雕甍, 輪焉奐焉, 飛出半空."

45) 위의 글. "又以其北可三十步所, 山復高起, 可臨見城內, 賊若據此, 城其危矣. 又斥其城, 限以山頂, 直山頂又起一樓, 是所謂'北山樓'也. 自是城完備無瑕, 可爲金湯萬世之固云."

www.kci.go.kr

목에 넌지시 드러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5·6구에서는 구천각의 견고함과 실용성을 부각하였다. 이 누각은 단순히 풍류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포루라는 군사적 목적을 지닌 건물이다. 한준겸은 증축된 구천각이 이러한 목적에 적절히 부합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겹으로 된 문이 외적의 거센 기세를 능히 막아낼 만큼 굳건하며 이곳에서 천 리 밖의 변란까지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마지막 7·8구는 구천각에 걸린 편액을 지목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마도 구천각의 유래와 기능, 그리고 이를 중건한 뜻을 적은 글이겠는데, 현존하는 자료로 미루어 조익이 쓴 「구천각기」가 그 대상이 아닐까 추정된다. 작품의 끝부분에 이를 언급함으로써 한준겸은 구천각이 단순한 누각이 아니라 북방 방비의 핵심적 보루임을 다시금 일깨워 그 의의를 부각하였던 것이다.

有樓岩嶢 上界中天　　누각이 있어 높고 우뚝 솟아, 하늘 한가운데 닿았으니,
乾坤不盡 風月無邊　　하늘과 땅은 끝이 없고 바람과 달빛도 한이 없네.
落霞孤鶩 芳草晴川　　저무는 노을과 외로운 오리, 향긋한 풀과 맑은 강,
騷人逸句 膾炙千年　　시인들의 뛰어난 시구는 천 년이 가도 회자되네.

– 낙민루 사장(樂民樓 四章)

제7곡의 구천각과 짝을 이루는 누각으로 제8곡에서는 낙민루(樂民樓)를 다루었다. 제7곡의 초두 '유각궁륭(有閣穹窿)'에 대응되도록 제8곡의 초두를 '유루초요(有樓岩嶢)'로 시작한 점이나, 두 곡의 7구인 '의루지문(倚樓之文)'과 '소인일구(騷人逸句)'에 공통적으로 시문을 언급한 점에서 형식과 내용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그림 4】 「함흥읍도」에 그려진 낙민루

남구만의 「함흥십경도기(咸興十景圖記)」에 따르면, 낙민루 자리에 처음 누각이 세워진 시

www.kci.go.kr

기는 명확하지 않다. 함흥부성의 서쪽 모퉁이에 예전부터 누각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자, 선조40년(1607)에 관찰사로 부임했던 낙서(洛西) 장만(張晩, 1566~1629)이 부성을 개축하면서 재건을 추진하였고 낙성 후 '낙민루'라 명명했다고 한다.[46] 새로 지은 누각은 그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함흥읍도」에서도 그 당당한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누각 아래에는 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었고 위층은 연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이 광해군2년(1610)에 지은 「낙민루기(樂民樓記)」에서도 낙민루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언급되었다. 신흠은 또한 '낙민'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장만이 북방 경계를 강화하여 오랑캐의 침탈을 막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였다.[47]

한편, 낙민루가 위치한 부성 서편으로는 함흥의 대표적 하천인 성천강이 흐르며 그 주변으로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낙민루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매우 인상적이었기에 함흥을 거쳐 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곳이 특히 애호되었고, 결국 낙민루는 함흥을 대표하는 누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48] 장만에 곧바로 이어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한 한준겸은 막 건립된 누각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었다.[49] 따라서 제8곡은 낙민루를 다룬 매우 이른 시기의 작품에 해당하는데, 이후에 지어진 다수의 시문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낙민루가 지닌 풍류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구천각과 낙민루는 모두 군사적 목적을 겸한 건

46) 남구만, 「함흥십경도기」, 『약천집』 제28. "古有樂民亭在府城西隅, 燬於壬辰. 萬曆丁未, 觀察使張公晩改築府城, 起樓於舊亭之基, 而上爲燕遊之所, 下設守禦之備, 仍扁曰'樂民樓'云."

47) 신흠, 「낙민루기」, 『象村稿』 권22. "舊有樂民亭, 圮於兵燹. 公拓其址而新之, 下爲砲樓, 上設燕閣. 役擧而民不苦, 役訖而民樂之, 迹其事而仍其扁, 曰'樂民樓'. (…) 民知其樂而不知所由樂, 公能使民樂而不使知所由樂."

48) 실제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숙종과 영조의 어제를 비롯하여 정철(鄭澈, 1536~1593), 최경창(崔慶昌, 1539~1583), 이안눌(李安訥, 1571~1637), 이식(李植, 1584~1647), 오도일(吳道一, 1645~1703), 김창협(金昌協, 1651~1708), 김창흡(金昌翕, 1653~1722) 등이 지은 여러 시가 수록되어 있다. [「함흥부」, 『여지도서』.]

49) 장만과 한준겸의 함경도 관찰사 재임 기간은 각각 선조40년(1607) 7월~광해군2년(1610) 10월과 광해군2년(1610) 11월~광해군5년(1613) 5월이다. [박정민, 「함경도 『관찰사선생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호, 전북사학회, 2018, 86쪽.]

www.kci.go.kr

물이지만, 제7곡에서 구천각의 견고함과 방어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제8곡에서는 낙민루의 아름다운 풍광에 주안을 두었던 것이다.

먼저 1·2구에서는 낙민루의 규모와 외관을 묘사하였다. 낙민루는 아래에는 포루, 위에는 연각(燕閣)이 배치된 구조로 인해 높이가 보통의 누각보다 훨씬 높기에, 그렇듯 우뚝한 형상이 마치 하늘 중심에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표현하였다. 3·4구에서는 낙민루에서 바라다보이는 탁 트인 풍경을 서술하였다. 다소 관습적인 표현이 쓰이기는 하였지만, 이곳에서 함흥평야의 광활한 전경이 조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과장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일례로 신흠은 기문에서, 평야가 멀리까지 내다보이며 그 끝자락이 바다에 닿을 정도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50] 한준겸 역시 북관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이러한 장쾌한 풍광을 지목하였던 것이다.

5·6구에서는 보다 가까운 풍경을 담아내어 3·4구의 원경과 짝을 이루었다. 낙민루를 읊은 여러 시문에 흔히 등장하는 또 하나의 경관은 누각 아래를 흐르는 성천강이다.[51] 여기에서도 석양을 배경으로 한 짝 잃은 물오리, 맑게 흐르는 강줄기와 강가의 향긋한 풀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왕발(王勃, 650~676?)의 <등왕각서(滕王閣序)>와 최호(崔顥, 704?~754)의 <황학루(黃鶴樓)>에서 각각 차용한 것이다.[52] 그러한 전고를 활용함으로써 낙민루를 중국의 등왕각·황학루와 같은 이름난 누각에 비견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 7·8구에서 '소인(騷人)'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왕발 및 최호와 자신 사이에는 천년의 시간 차가 있으나, 그들이 읊은 옛 시구 속 풍광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낙민루가 등왕각·황학루와 병치되는

50) 신흠, 「낙민루기」, 『상촌고』 권22. "樓下有橋曰'萬歲', 匯衆流而瀦于橋下, 方可五里. 濤波淪漣, 望之若巨浸也. 橋外有野, 平楚彌迤, 一面際海, 窮睇而不可極也."

51) 이안눌, <六月二十一日癸亥 題樂民樓>, 『東岳集』 권19. "(…) 靑蕪北接黃雲闊, 白水南通黑海遙, (…)"; 이식, <登樂民樓 與都事許子賀楠丈談飮 追賦記興>, 『택당집』 권1. "(…) 直壓滄江侵海闊, 遠開靑嶂畫郊寬, (…)"; 오도일, <咸興樂民樓>, 『西坡集』 권8. "(…) 山蟠沛國千年地, 橋壓城川一派流, (…)" 등.

52) 왕발, <등왕각서>. "(…) 落霞與孤鶩齊飛, 秋水共長天一色, (…)"; 최호, <황학루>. "(…)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

www.kci.go.kr

동시에 한준겸 자신도 왕발·최호와 병치되는 인상이 전해진다.

百花一院 四時三春　　백화원 한 곳에는 사계절이 내내 봄이로다.
桃李嬋娟 蘭麝氳氤　　복사꽃과 오얏꽃은 어여삐 곱고, 난초와 사향은 향내 그윽하네.
梨園弟子 金谷佳人　　이원(梨園)의 제자와 금곡(金谷)의 가인은,
暮暮朝朝 雲雨傷神　　저녁마다 아침마다 운우(雲雨)의 정에 마음 상하네.
– 백화원 사장(百花院四章)

제9곡과 제10곡에서는 함흥의 풍류적 공간을 시화하였다. 마지막 두 곡에서는 상춘(賞春)과 연회,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 등 보다 일상적인 풍경이 제시되는데, 이는 북관의 위상과 공적 책무를 앞세웠던 이전 부분과는 변별되는 특징이다.

제9곡의 배경은 백화원(百花院)이다. 그 명칭이나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다양한 화초가 자생하는 정원으로 추정되나, 이곳은 함흥을 다룬 여타의 작품은 물론, 지리지나 읍지에서도 언급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분명치 않으며, 널리 알려진 명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院)’이라는 글자가 여행하는 관원들의 숙소인 원우(院宇)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함흥에 ‘백화원’이라는 원우가 존재했다면 읍지에 응당 등재되었을 것이므로 여기서의 ‘원(院)’은 단지 들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함흥시의 남동부 해안 지역 일부가 ‘백화원 지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일대가 한준겸이 언급한 바로 그 백화원일 가능성이 있으나 역시 단정하기는 어렵다.[53]

작품의 1·2구에서는 백화원의 전반적인 풍경을 제시하였다. 사시가 모두 봄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곳이 계절에 상관없이 꽃이 만발해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였다. 시기마다 다른 종류의 꽃이 피어나는 덕분에 어느 때에 방문하더라도

53) 「마전유원지」, 북한지역정보넷, 2025. 1. 13.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0405&sc=A32525003&tid=CC030400005137&direct=1&direct=1>.

www.kci.go.kr

화사한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4구에서는 그러한 난만함이 감각적으로 구체화되었다. 피어나는 어여쁜 꽃들의 종류를 열거하고 난초와 사향의 향내마저 진하게 번지는 정취를 제시하면서 백화원에 가득한 풍류를 전하였다.

앞서 3·4구에서 '도리(桃李)'와 '난사(蘭麝)'를 병치하였다면 이어지는 5·6구에서는 이처럼 운치 있는 공간에 모여 있는 '이원제자(梨園弟子)'와 '금곡가인(金谷佳人)'을 병치하여 그와 대를 이루게 하였다. 3·4구와 5·6구를 각각 대구로 구성하면서, 동시에 그 두 구 단위가 다시 한 번 자연물과 인간으로 대를 이루도록 배치한 형상이다.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고상한 풍류객과 아리따운 여인이 모여 한바탕 연회를 벌이는 광경이 연상된다. 마지막 7·8구는 '운우지정(雲雨之情)'의 고사가 담긴 송옥(宋玉, B.C.298~B.C.263)의 <고당부(高唐賦)>를 차용한 부분이다.[54] <고당부>의 '조조모모(朝朝暮暮)'를 '모모조조(暮暮朝朝)'로 순서를 바꾸고 '운우(雲雨)'를 직접 노출하였다. 한준겸이 이 고사에서 끌어온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기쁨보다는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하는 안타까움이다. 초 회왕(懷王)과 무산(巫山) 신녀(神女)는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이 허락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백화원을 배경으로 하는 뭇 사랑 역시 그와 같다고 하여, 애틋한 정조를 드러내며 작품을 마무리하였다.

萬歲危橋 十里長河　　만세교 위태로운 다리에 십 리의 긴 강줄기로다.
垂楊夾岸 細草連坡　　드리운 버들은 강기슭을 끼고, 가느다란 풀은 제방에 이어졌네.
斜陽送客 翠袖啼娥　　비낀 햇살에 나그네를 보내며, 푸른 소매의 미인

54) 송옥, <고당부>. "昔者楚襄王與宋玉遊於雲夢之臺, 望高唐之觀. 其上獨有雲氣, 崒兮直上, 忽兮改容, 須臾之間, 變化無窮. 王問玉曰: "此何氣也?" 玉對曰: 「所謂朝雲者也." 王曰: "何謂朝雲?" 玉曰: "昔者先王嘗遊高唐, 怠而晝寢, 夢見一婦人, 曰: "妾巫山之女也, 爲高唐之客. 聞君遊高唐, 願薦枕席." 王因幸之. 去而辭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 旦爲朝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旦朝視之如言. 故爲立廟, 號曰'朝雲'."

www.kci.go.kr

이 흐느끼니,
歲歲年年 別淚添波 해마다 해마다 이별의 눈물 물결에 더한다네.
– 만세교 사장(萬歲橋四章)

마지막 제10곡에서는 함흥의 대표적 명소 가운데 하나인 만세교를 다루었다. 일상적 풍광과 연정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9곡과 짝을 이루며, 표현상으로도 7구에 각각 '모모조조(暮暮朝朝)'와 '세세년년(歲歲年年)'이라는 첩어가 배치되어 있어 상호 연계성이 드러난다. 다만 제9곡의 화사하고 생동하는 정취에 비한다면 제10곡은 다소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제10곡에서 다룬 만세교는 부성 서편의 성천강 위에 놓인 목교(木橋)로, 고려 말 덕녕부윤(德寧府尹)을 지낸 송은(松隱) 장안세(張安世, ?~?)가 처음 만든 것으로 확인된다. 성천강은 강폭이 넓고 유량이 많아 자주 홍수가 발생했는데 고려 말에도 물난리가 나자 조정에서 장안세를 함흥에 보내 치수에 힘쓰게 하니, 그는 공들여 물길을 정비하고 강 위에 목판으로 다리를 놓아 백성의 편

【그림 5】 20세기 초의 만세교 전경 [함흥회엽서상(咸興繪葉書商) 발행]

www.kci.go.kr

의를 도모하였다고 한다.[55] 여러 문헌들에는 만세교가 홍수로 유실되었다가 복구되기를 거듭한 내력이 남아 전한다.[56] 한준겸은 처음 이 다리가 놓인 지 2백여 년 후의 인물이므로 그가 본 만세교 역시 원래의 다리가 아니라 어느 시점엔가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리가 복구되는 동안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겠으나, 성천강의 넓은 강폭을 가로지르는 그 길게 뻗은 모양은 어느 시기에든 이채롭게 느껴졌을 법하다.

작품의 1·2구에서는 유장한 성천강 물줄기 위에 놓인 만세교의 외양을 조명하였다. 무엇보다도 다리가 '위태롭다[危]'라고 평한 대목이 눈에 뜨인다. 훗날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만세교를 두고 "무지개처럼 길게 누워 있다[萬歲橋長臥彩虹]"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57] 이는 다리가 마치 하늘에 드리운 무지개처럼 끝없이 이어진다는 인상을 표출한 것이다. 천상의 무지개 같다는 것은 지상에서는 좀체 마주하기 어려운 모양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준겸 역시 강 위에 떠 있는 듯 기다랗게 연결된 다리의 형세를 보면서, 어딘지 보통의 다리 같지 않은, 위태롭고도 불안정한 느낌을 받았던 듯하다. 3·4구에서는 만세교 위에서 조망한 성천강 일원의 풍경을 묘사하였다. 성천강은 함흥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강변의 백사장이 예로부터 명승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한준겸은 이보다도 강을 옹위하듯 기슭 양쪽에 늘어선 수양버들과 둑을 따라 연이어 자라난 가느다란 풀을 주요한 풍광으로 포착하였다. 이는 2구에서 성천강의 긴 물줄기를 언급했던 것과 적절히 호응한다. 만세교와 성천강, 강 양안의 버들과 풀까지 모두 길게 뻗어 있는 모습으로 포괄된 것이다.

1~4구에서 만세교와 성천강의 경관이 제시되었다면, 5~8구에서는 이곳 풍

55) 李象靖, <高麗正憲大夫行德寧府尹張公遺墟碑陰記>, 『大山集』 권47. "公仕於麗季, 至正憲大夫德寧府尹, 府有大水, 朝廷任公治之. 公居官十載, 盡心疏淪, 用木板作萬歲橋, 至今民賴其利."

56) 『선조실록』 권190, 38년 8월 1일(계묘); 『경종실록』 권13, 3년 12월 15일(경신); 『영조실록』 권23, 5년 윤7월 21일(계사); 「연보」, 『眉山集』 권14 등.

57) 김창협, <함흥>, 『농암집』 권2. "樂民樓迥倚層空, 萬歲橋長臥彩虹, 橋上人行樓上坐, 相看俱是畫圖中."

www.kci.go.kr

속의 한 장면이 묘사되었다. 바로 이별의 정경이다. 만세교는 부성의 서문 바깥에 접해 있어, 함흥을 떠나는 이와 그곳에 남는 이가 헤어지는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다. 그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만세교는 자연스레 이별의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세세년년(歲歲年年)'이라는 표현도 해마다 반복되는 이별의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으로 이해된다. 5구의 '해질녘[斜陽]'이라는 시간 설정 역시 쓸쓸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한다. 마지막 구에서는 '아리따운 여인[娥]'의 눈물방울이 물결에 더해진다고 하였는데, 이는 남호(南湖) 정지상(鄭知常, ?~1135)의 시구를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별의 광경을 한스럽게 응축하고 있다.[58]

이처럼 서글픈 분위기를 자아내는 제10곡의 내용은 작품을 종결짓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한다. <함산십곡>은 함흥을 역람(歷覽)하는 것 같은 인상을 독자에게 유발하거니와, 마지막 곡에 이별의 풍광이 배치됨으로써 이제 함흥을 다 둘러보고 아쉽게도 발걸음을 돌리는 듯한 쓸쓸함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깊은 여운을 머금은 종결이라 할 만하다.

4. 결론

이상에서 유천 한준겸이 함경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시가를 적극 활용했던 내력을 고찰하고, 그 주요 사례인 <함산십곡>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준겸은 조정의 중신으로서 임진왜란 직후 야인들이 준동하던 위기적 국면에서 함경도의 통치 책임을 맡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이 시기의 행적은 졸기와 신도비에 특기될 만큼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는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

58) 정지상, <送人>.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東文選』 권19.]

www.kci.go.kr

고 북방의 방비를 강화하는 한편,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는 데에도 유념하였으며, 이를 위해 시가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16~17세기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시가를 통해 백성을 교화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거니와, 한준겸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 동참하였던 것이다.

그의 기본적인 지향은 전통적 예악의 법식을 되살리는 것이었으나, 민간의 노래 또한 일부 포용하여 시가 활용의 편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그가 시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되는데, 하나는 유가적 이념과 종법적 질서의 확립이며, 다른 하나는 북관 지역의 중요성과 자긍심의 환기이다. 오륜의 실천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오륜법곡>과, 『용비어천가』를 초략·언해하여 관내에 널리 유포한 『용비어천가약본』이 이 두 부류를 각각 대표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함산십곡>은 한준겸의 시가 활용 양상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주요 사례로서, 『용비어천가약본』과 마찬가지로 북관, 특히 함흥의 위상과 상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 그는 함흥의 대표적인 공간 열 곳을 선정하고, 각 공간에 대해 4언 8구 한 수씩 작품을 지어 총 십곡을 구성하였다. 발문에 따르면 <함산십곡>은 당초부터 노래로 부르기 위해 지은 것이 분명하며, 이 점을 반영하듯 각 작품은 두 구씩이 한 장(章)의 가창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

내용상으로는 열 개의 공간을 둘씩 묶어 다섯 범주로 분류하려 한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짝을 이루는 두 곡에는 동일한 어휘 및 통사 구조와 유사한 시구를 활용하여 연계성을 현시하였다. 먼저 '육릉'과 '본궁'을 다룬 제1·2곡에서는 각각 사조와 태조의 유적을 기림으로써 함흥이 풍패지향(豊沛之鄕)임을 직접적으로 부각하였다. 이어서 '격구장'과 '덕산동'을 다룬 제3·4곡에서는 각각 태조의 청년기와 장년기의 행적을 조명하여 함흥에 서린 태조의 기풍을 칭송하였으며, '문회당'과 '무양정'을 다룬 제5·6곡에서는 한준겸 자신이 북관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은연히 드러내면서 문치와 무비가 이상적으로 조화된 양상을 형상화하였다. 한편, '구천각'과 '낙민루'를 다룬 제7·8곡에서는 함흥의 웅장한 누각을 묘사하여 북관 지역 특유의 정세와 풍광을 운치 있게

www.kci.go.kr

포착하였고, ‘백화원’과 ‘만세교’를 다룬 마지막 제9·10곡에서는 수려한 경치와 애상적인 정서를 교차시키며 함흥의 일상적 풍광을 섬세하게 담아내었다.

결론적으로 <함산십곡>은 ‘풍패의 위상’, ‘태조의 기풍’, ‘문무의 제도’, ‘누각의 풍치’, ‘승경과 인정’이라는 다섯 범주를 중심으로 함흥의 과거와 현재, 국가적 상징성과 일상적 감성을 아우르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연작시가로서 탁월한 짜임새를 보여 주는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면밀한 구성으로 특정 지역의 면면을 조리 있게 엮어낸 연작은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함산십곡>은 한준겸의 경세가적 사명과 시적 안목이 적절히 조화된 수작이라 할 만하다.

한준겸은 음률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노래가 지닌 감발력과 교화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그는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도 역임했으나, 시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기는 함경도 관찰사 재임기였다. 이는 함경도가 조종의 자취가 완연히 남아 전하는 왕조의 발상지라는 점, 그러나 전란을 겪으며 민심의 이반이 우려할 만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해석된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켜 움직이게 할 만한 절실한 방책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유력한 고위 관료이자 후일 국구(國舅)가 되는 한준겸이 지방을 통치하면서 의욕적으로 시가를 짓고 유포하였던 선례는 후대의 관료 문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준겸의 시가 창작과 활용은 당대 북관의 풍광과 사정을 정교하게 살피는 데에도, 17세기 시가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모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김창협, 『농암집』 권2; 남구만, 『약천집』 제27·28; 신흠, 『상촌고』 권22; 오도일, 『서파집』 권8; 이상정, 『대산집』 권47; 이식, 『택당집』 권1; 이안눌, 『동악집』 권19; 이유원, 『임하필기』 권16; 임제, 『임백호집』 권3; 조익, 『포저집』 권27; 한장석, 『미산집』 권14; 한준겸, 『유천유고』; 홍양호, 『이계집』 권5.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2025. 7. 2. <https://db.itkc.or.kr/>.

『고려사』.

→「고려시대 사료: 고려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5. 7. 2. <https://db.history.go.kr/goryeo/itemLevelKrList.do?itemId=kr>.

『태조실록』; 『세종실록』; 『선조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경종실록』; 『영조실록』.

→「조선시대 사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025. 7. 2.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용비어천가』.

→「한국고전원문자료관: 용비어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2025. 7. 2. <https://kostma.aks.ac.kr/classic/gojunViewIframe.aspx?dataUCI=G002+CLA+KSM-WC.1612.0000-00000000.0007&clsType=sabu>.

『용비어천가약본』.

→「『용비어천가약본』 영인」, 『민족문화연구』 10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6, 268~305쪽.

「한효윤신도비」; 「한준겸신도비」.

→「연구DB: 금석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25. 7. 2. <https://portal.nrich.go.kr/kor/ksmUsrView.do?menuIdx=584&ksm_idx=9216>.

「함흥읍도」.

→「함흥읍도(咸興邑圖)」,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2025. 7. 2. <https://www.heritage.go.kr/heri/cul/imgHeritage.do?ccimId=1639345&ccbaKdcd=21&ccbaAsno=0002170000000&ccbaCtcd=34>.

「함흥부지도」.

www.kci.go.kr

→「함흥부지도(咸興府地圖)[奎10686]」,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25. 7. 2. <http://kyudb.snu.ac.kr/pf01/rendererImg.do?item_cd=GZD&book_cd=GK10686_00&vol_no=&page_no=&imgFileNm=&tbl_conts_seq=&mokNm=&add_page_no=>.

『여지도서(輿地圖書)』.

→ 김우철 역주, 『여지도서 27: 함경도 Ⅰ』, 전주: 디자인 흐름, 2009.

『악학궤범』.

→ 이혜구 역주, 『(신역) 악학궤범』, 국립국악원, 2000.

2. 단행본

김승우,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수용』, 보고사, 2012.

_____, 『조선시대 시가의 현상과 변모』, 보고사, 2017.

송방송, 『한국음악통사』, 일조각, 1984.

장사훈, 『(중보) 한국음악사』, 세광음악출판사, 1986.

하윤섭, 『조선조 오륜시가의 역사적 전개 양상』,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4.

3. 논문

김승우, 「북관 고적에 대한 홍양호의 인식과 시적 형상화」, 『한국시가문화연구』 5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

민경서, 「16세기 향촌사족 교훈시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5.

박정민, 「함경도 『관찰사선생안』의 명단 검토와 재임 실태」, 『전북사학』 52호, 전북사학회, 2018.
(DOI: 10.28975/jha.2018.03.52.063)

성기옥, 「<용비어천가>의 구조와 서사성」, 새터 강한영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한국판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3.

성제훈·곽낙현, 「조선전기 무과 시취를 통해 본 무예 검토」, 『청계사학』 26집, 청계사학회, 2023.
(DOI: 10.33835/cghs.26.1)

신연우, 「주세붕에서 정철로 훈민시조의 변이와 그 의의」, 『온지논총』 4집, 온지학회, 1998..

이정철, 「조선시대 공물변통론에서 포저 조익의 위치와 역할」, 『대동문화연구』

www.kci.go.kr

70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DOI: 10.18219/ddmh..70.201006.255)
전재강, 「훈민시조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성격」, 『어문학』 79집, 한국어문학회, 2003.
(UCI: G704-000112.2003.79..015)
조태흠, 「훈민시조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89.

www.kci.go.kr

| Abstract |

A Study on Han Jun-gyeom's Use of Poetry as a Means of Govern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Hamsansipgok*

Kim, Seung-u
Ewha Womans Univ. Prof.

This study examines how Han Jun-gyeom actively employed poetry (siga) during his tenure as Governor of Hamgyeong Province, both to enlighten the people and to extol the founding achievements of the Joseon dynasty. Appointed amid the political instability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s, Han was tasked with restoring war-torn territories, reinforcing northern defenses, and reuniting a divided populace. To that end, he made broad use of poetry as a tool of moral and ideological governance. His poetic agenda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aims: the promotion of Confucian ideals and the reinforcement of clan-based social order, and the affirmation of the historical and symbolic importance of the northern region, especially Hamgyeong. Two key examples embodying these aims are Oryunbeopgok, which encouraged the practice of the Five Confucian Relationships (oryun), and an abridged and vernacularized version of *Yongbieocheonga*, which he distributed throughout the region.

Another representative work that exemplifies Han's literary

www.kci.go.kr

strategy is *Hamsansipgok*. Like the abridged *Yongbieocheonga*, this ten-part poetic sequence sought to elevate the symbolic stature of Hamheung. Han selected ten prominent locations within the city, composing one quatrain of eight-character lines for each, pairing them to form five thematic groups. Each pair of poems share lexical and syntactic structures, emphasizing cohesion and resonance. The first and second poems commemorate royal sites to underscore Hamheung as the land of dynastic origin. The third and fourth highlight martial episodes from King Taejo's youth and adulthood. The fifth and sixth reflect Han's own political role, illustrating the harmony of civil and military governance. The seventh and eighth describe grand architectural structures, capturing the regional atmosphere and scenery. The final two poems depict everyday landscapes imbued with lyrical sentiment.

Through its organization around five thematic axes—"royal origin," "martial legacy," "civil-military order," "architectural grandeur," and "scenic sentiment"—*Hamsansipgok* integrates symbolic memory and emotional texture. The work thus stands as a refined example of Han Jun-gyeom's fusion of poetic insight and Confucian statecraft.

Key words : Han Jun-gyeom(韓浚謙), Hamsansipgok(咸山十曲), Yucheon Yugo(柳川遺稿), Bukgwan(Northern Region), Hamgyeong Province(咸鏡道), Hamheung(咸興), Yongbieocheonga(龍飛御天歌), King Taejo(太祖), Nam Guman(南九萬)

투고일 : 2025년 7월 23일 심사기간 : 8월 10일 - 8월 20일 게재확정일 : 8월 21일

www.kci.go.kr